

2021년 8월 30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.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혜택을 신청하려면 dcnetworks.org 를 참조하십시오.

D.C. 고용 서비스부(D.C. 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, DOES)는 8월 30일부터 연방법 및 지역법에 따라 실업급여 청구인에 대한 구직 요건을 부활시킬 예정입니다. 따라서 청구인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,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 이 요건은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청구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

구직 요건은 매주 2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완료하는 것입니다.

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행위:

- 직접 내방, 우편, 전화, 팩스, 온라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지원 활동
- 취업박람회 참석
- 이전 직당 동료 또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구직 사실을 알리거나 구직 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행위
- 장래 고용주에게 연락하기
- 직업 소개소 또는 취업 알선 서비스 이용
- DOES 를 통해 제공되는 인력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

실업급여 청구 시, 알아야 할 기타 중요한 정보:

- 청구인은 취업 지원서나 이력서를 고용주에게 직접 제출하거나, 고용주가 정한 고용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주의 고용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, 청구인은 동일한 일자리에 대해 입사 지원서를 여러 번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청구인이 기존의 실업보험 또는 미국구제계획법(American Rescue Plan Act, ARPA)에 따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다음 프로그램은 ARPA 의 일환입니다(2021년 9월 4일에 만료):

- 팬데믹 실업 지원 (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, PUA)
- 팬데믹 긴급 실업 수당(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, PEUC)
- 팬데믹 실업 수당 (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, FPUC)
- 혼합 소득자 실업 보상 (Mixed Earners Unemployment Compensation, MEUC)

DOES 는 청구 시행일로부터 언제든지 청구인의 구직 활동 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구직 노력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. 청구인은 요청받지 않는 한, 구직 기록을 DOES 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.

단,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직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 청구인이 요청받은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초과 지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실업 급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혜택을 신청하려면 dcnetworks.org 에서 포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